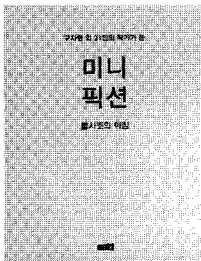


지구촌 양계뉴스



한국

'닭' 주제 엽편소설 출간



미니픽션 작가모임의 네 번째 작품집 '미니픽션 불사조의 아침' (나무와숲)이 최근 출간됐다.

이번 네번째 작품집에는 모두 22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닭'을 주제로 한 테마작 18편과 작가들의 자선작 47편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수록됐다.

1부에는 표제작인 구자명씨의 '불사조의 아침', 김병언씨의 '슬픈 닭발', 서지원씨의 '계공들의 비상회의', 이진훈씨의 '그거 아세요, 나무꾼과 선녀 뒷이야기'가, 2부에는 권여선씨의 '어느 날 문득', 김민효씨의 '송곳니 족속의 부활', 김정묘씨의 '아내가 사는 법' 등이 각각 실렸다.

한편 미니픽션은 엽편소설 또는 핵편소설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작가모임은 지난 2004년 '속도와 영상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 문화 환경에 적합한 새 문학 콘텐츠 창출 및 적용'이란 가치 아래 태동했다.

- 광남일보



미국

타미플루 내성 극복 새로운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개발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복제와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성분이 미국과 홍콩 연구팀에 의해 규명됐다.

계절성 H1N1 바이러스 등 타미플루 등의 치료약물에 내성을 보이는 독감 바이러스 균주가 속속 출현하며 새로운 차단약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긴급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6일 홍콩과 미국 연구팀이 'Medicinal Chemistry' 지에 밝힌 총 23만 종의 성분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종의 성분이 H5N1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mpound 1 혹은 NSC89853이라 불리는 성분들 중 하나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결과 이 같은 성분이 타미플루와는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H5N1과 계절성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돼 배양된 인체세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compound 1 성분이 두 종의 바이러스의 복제를 효과적으

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약물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성분이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 치료 약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물이 실제 임상에 사용되기까지는 앞으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 메디컬투데이

베트남 AI 퇴치에 730만불 지원

베트남 유력 일간신문 투오이 쩌는 지난 4월 14일 인터넷을 통해 미국이 유엔식량기구(FAO)를 통해 모두 730만달러 규모의 베트남 AI 퇴치사업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지난 4월 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디엵 킹 쩌 베트남 농촌개발부 차관과 앤드루 스피디 FAO 주재대표 명의로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AI 발병의 전염체로 알려진 가금류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에 사용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2005년부터 베트남의 AI 퇴치사업 지원 명목으로 지금까지 5천만달러를 제공했으며 베트남도 지난 2003년 AI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두 1억3천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재발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일본

닭발은 고혈압 특효약

닭발 안에 들어 있는 풍부한 콜라겐이 고혈압 약만큼의 혈압 강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히로시마대 사이카 아이 박사팀은 닭발로부터 콜라겐이 섞인 4개의 다른 단백질을 추출해 고혈압 쥐에게 먹인 결과 8시간만에 혈압이 크게 떨어지고 효과가 4주 동안 지속됐다고 지난 4월 12일 밝혔다.

연구팀은 닭발에 풍부한 콜라겐 단백질이 ACE 억제제(ACE Inhibitor)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ACE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ACE)'를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 약이다.

닭발에는 콜레스테롤이 적고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 미용과 관절에 좋을 뿐 아니라 골다공증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증명된 것이다. 인체 내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콜라겐은 피부, 뼈, 관절, 연골, 인대 등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연구진은 "닭가슴살에도 일부 콜라겐이 들어 있지만 양이 적고, 콜라겐을 섭취하고자 한다면 닭발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코메디닷컴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복수 접종시 항체 증식

일본 후생 노동성의 연구진은 지난 4월 6일 다른 바이러스 종을 기초로 한 백신을 복수로 접종하면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방지에 유효한 항체가 증식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기초로 한 백신을 지난해 여름 약 400명을 대상으로 접종했는데, 이중 200명은 2년전 베트남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백신도 접종한 상태였다.

그 결과 베트남 종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접종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 중국종이나 인도네시아 종에 대한 항체가 높았다. 특히 중국 종에 비해서는 약 1.8배 높았다.

이하라 토시아키 국립 병원기구원장은 “이론적으로는 추가 접종으로 항체는 높아졌다”며 “그러나 임상 효과는 실제로 신형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후생 노동성은 이번 가을을 목표로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헬스코리아뉴스

들고양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야생 들고양이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확인된 야생 생물의 감염사례는 조류에서만 있었으며 포유류에서 발견되기는 처음이다.

일본 도쿄대와 아마구치대의 공동 연구팀은 최근 우츠노미야시에서 개최중인 일본수의학회에서 2005년 이후 서일본 3곳과 동일본 1곳 등에서 포획된 들고양이 988마리의 혈액을 조사했는데, 그 중 3곳의 합계 10마리에서 과거에 H5N1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항체를 검출했다. 이중 2곳은 과거 H5N1에 감염된 조류의 보고가 없는 지역이었다.

일본에서는 사육중인 닭 외에 야생 백조, 까마귀 등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헬스코리아뉴스

영국

심장병 예방에 도움 되는 닭을 사육

닭에게 스테아리돈산 강화 콩기름을 먹이는 것이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

최근 영국 리딩대학교의 캐롤라인 라이머가 사우스포트에서 개최된 WPSA 연차총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는 일일 권장섭취량의 54%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산의 섭취를 늘릴수록 관상동맥 및 특정 유형의 암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입증되므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 섭취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은 판매되는 닭

의 지방산 수치를 높이는 것이다.

라이머 박사가 실시한 이전의 시험을 통해서 닭에게 생선기름이나 해조류가 함유된 식사를 먹여 성공적으로 닭의 지방산 수치를 올렸다. 하지만 가열하면 닭에서 생선비린내가 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머 박사는 높은 수치의 스테아리돈산을 함유토록 길러진 유전 자변형작물로부터 추출한 콩기름을 먹이는 대체전략에 주목했다.

라이머 박사는 “스테아리돈산을 먹이면 닭의 장쇄 오메가3지방산의 생산이 촉진되어 고기의 영양가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장쇄오메가3지방산의 수치가 상승되었다. 여전히 재가열한 닭다리에서 생선비린내가 있었지만, 생선기름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줄었다고 한다.

- Farmers Weekly Interactive

▶ 닭 도축과정 중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계장치 개발

영국의 가축복지위원회(FAWC)는 현재의 관행을 바꿀 것으로 주목되는 전 도축과정에서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최근 밝혔다.

가축복지위원회 실무진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시설을 방문하고 과학논문을 검토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포획과 운반과정을 포함한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미 영국 링컨셔어 지역 소재의 한 가금처

리회사에서는 농장에서부터 도축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통해 사람의 접촉을 줄여 스트레스를 낮추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포획에서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완벽하게 생존상태로 처리하는 이 시스템은 닭과 작업자 모두를 위한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가금처리 전문회사인 앤그리아 오토플로우와 디스가 개발했다고 한다.

도축과정의 첫 단계는 다리를 잡고 닭을 손으로 포획하는 대신에 적재가 용이한 수확기를 이용해 닭을 부드럽게 잡는 것이다.

앤그리아 오토플로우의 영업이사인 베리 랜드모어는 이 포획기가 닭장 주위를 돌면서 1회 30초에 200마리까지 잡아 기계가 채워지면 닭을 투입구에 붓고 다음 닭들을 신기 위해 닭장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계가 시간 당 8,000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 포획기는 한 사람이 운전하며 반복 작동의 필요가 없어 포획 중 사람과 닭이 접촉하지 않는다고 한다.

랜드모어는 “사람이 닭과 접촉하지 않아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손으로 닭을 잡는 일은 피곤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도 지치지 않아 능률도 오르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또한 다리를 잡혀 거꾸로 매달린 채 퍼덕이다가 부상을 입기 십상인 닭에게도 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좋은 일이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다리 부상은 38%, 날개 부상은 11%로 감소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손으로

닭을 잡는 것과 비교해 운전자는 먼지를 차단시키는 공기정화 마스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복지도 역시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작업이 농장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각각의 우리를 보다 청결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교차오염의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기계가 채워지면 닭을 투입구에 부어 조심스럽게 포장실로 이송한다. 포장실에서는 닭의 숫자를 자동으로 계산해 적재함에 집어넣은 후 화물차에 실어 가공실로 보낸다.

앤그리아 오토플로우에 따르면 이 작업은 적재함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데 한 사람 그리고 트럭 운전이 한 사람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닭은 공기조절 마취시스템(CAS)을 이용해도축되므로 더 이상 족쇄를 찬 생명체가 아니다. 적재함은 이송장치에서 분리되어 자동으로 영국의 규정에 따라 질소와 이산화탄소 또는 아르곤을 함께 채운 CAS 시스템으로 하역된다.

또 2단 이산화탄소시스템을 개발했는데, 1단계에서는 최대 30%의 이산화탄소를 1분간 지속시켜 닭에게 안락함을 제공하며 서서히 무의식 상태로 만들고, 2단계에서는 서서히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닭이 사망하는 70%까지 이르게 한다고 한다.

이는 닭의 복지뿐만 아니라 죽은 닭을 매다는 작업에서의 소음과 먼지를 감소시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작업자에게도 역시 이롭다. 닭은 사망에 이르는 가스실까지는 적재함에

있다가 매달리게 된다. 따라서 닭이 받는 스트레스는 최대한 낮아진다고 한다.

또 영국 내의 모든 시스템은 현재 질소 및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 및 아르곤을 사용해 질소 혼합물의 비용은 훨씬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랜디모어는 스트레스는 품질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면 닭은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최상의 육질을 얻을 수 있고, 고기는 더욱 더 깨끗하게 처리되어 나온다고 했다. 또한 1.5%의 수율이 상승하고, 사체가 부드러워지므로 방혈도 개선되어 가슴살의 빛깔은 더 일정해진다고 설명했다.

- Farming Weekly Interactive(FWI)

EU 육계를 위한 복지규정 마련

식용으로 사육된 닭에 대한 유럽 최초의 종합복지규정 시행계획이 영국의 농무장관 제인 케네디에 의해 의견수렴을 위해 최근 발표되었다.

EU의 규정은 복지에 기여하는 개별적 요소뿐만 아니라 닭의 전반적인 복지에 주목하며 도축장의 닭을 감시함으로써 동물복지와 식품안전에 책임이 있는 생산자와 기관이 함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유럽의 규정은 현재의 자발적 보증제

획을 대체 아닌 보완하면서 자발적 보증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식용으로 사육된 닭에게만 이전에 적용되던 제한된 환경에 대한 발전이다.

케네디는 “문제가 되는 닭의 전반적인 복지에 주목해 많은 요소들이 높은 복지수준에 기여했고, 유럽 전역이 모든 닭에 대한 더 나은 동물복지 기준에 주목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대부분의 영국 생산자들에게는 새로운 요건이 이미 자리 잡고 잘 운영되고 있는 체제위에 단순히 올려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U의 조치는 또한 산업훈련에 관한 명확한 요건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신규제한 및 온도, 습도 및 최대사육 밀도의 기준도 포함한다.

새로운 EU규정은 2010년에 효력을 가지며 500마리 이상의 닭을 소유한 닭고기 생산자 전부를 포함한다. 이 규정은 식용 닭의 종축, 부화장의 닭, 넓은 실내에서 키운 닭, 방목 또는 유기농 닭 등은 제외했다.

- DEFRA(영국 환경식품농림부)

한 미국의 수입 금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닭 부분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세계 무역 규정중 여러 조항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WTO는 중국과 미국에 60일 간의 협의를 명령하게 된다. 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은 WTO에 공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WTO는 무역 규정을 위반한 나라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소송이 끝나기까지는 통상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과 미국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때도 몇몇 주요한 분쟁을 빚었으며 이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

워싱턴의 미 무역대표부로부터는 아직 이에 대한 논평이 나오고 있지 않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서로 상대방 국가의 가금류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몇 달 후 이를 해제했지만 미국은 지금도 중국산 닭에 대한 수입 금지를 풀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400만 톤 이상의 닭을 수입했으며, 이는 주로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닭발이었다. 

- AP/뉴시스



중국

닭 수입금지 관련 WTO에 美 제소

중국은 지난 4월 17일 중국산 가금류에 대